

“정권교체” “정치교체” “제3지대”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후끈

문재인·반기문 양강구도에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빅텐트론’ 주목

이재명 광주서 ‘손가락 혁명군’ 출범·박원순 곧 출마선언…본격 경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폭 대선행보를 시작하고 설 명절 연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레이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15일 ‘박지원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제 3지대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나아가 2~3월 정치권 빅벨을 예상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활동 폭을 넓히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주목된다.

반 전 총장과 문 전 대표는 대선 프레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의 제 2환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단순한 정권교체라는 제한된 수단보다 전체적으로 정치체도를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 없는 정치교체는 박근혜 정권 연장”, “정치교체는 옛날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것”이라며 반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3대 비교우위론’을 꺼내들며 ‘반풍’(潘風·반기문 바람) 차단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17일 오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뒤 영암에서 1박하고, 이튿날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조선대에서 특강하

는 등 호남행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선두권 후보의 충돌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이날 전당대회를 열어 박지원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치권에 실체가 있는 제3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자강론’을 내세워 당 자체의 힘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날 신임 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국민의당이 빅텐트이고, 플랫폼이다. 제 3지대는 녹색지대, 국민의당이다”며 “국민의당에 합리적 개혁세력이 총집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개헌을 역설하며 ‘제 3지대론’ ‘빅텐트론’ ‘빅벨론’ 등을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 눈길을 끌었다. 반 전 총장의 귀국으로 제3지대에서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대권 주자들을 모아 경선을 치르는 ‘빅텐트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주장해온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장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광주에서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을 출범시키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설 전 공식 출마선언을 예고하는 등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화재 현장 15일 새벽 2시29분께 여주시 교동 여수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총 127개의 점포 중 117곳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감시반원들이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설이 코앞인데...여수 수산시장 점포 117곳 ‘젓더미’

전기 누전 추정...인명피해 없어

여수 수산시장에서 한밤중에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0여개가 넘는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탔다.

<관련기사 6면>

15일 새벽 2시21분께 여주시 교동 여수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 여만인 새벽 4

시24분께 불길에 잡혔지만 전체 점포 125개(점포당 면적 6.6m) 가운데 117곳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경비원 혼자 근무하는 새벽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1층 점포 58개가 전소됐고, 23개는 일부가 불에 탔으며 35개는 그을렸다. 2층에서도 점포 17개가 연기에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액을 5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불길은 직사각형 형태의 수산시장(부지 1537㎡) 내 한 횃집 수족관 주변 전선에서 시작돼 수십 분 만에 시장 전체를 집어삼켰다. “타그닥 소리가 나서 보니 불꽃이 일고 있었다”는 야간 경비원 김희중(69)씨 진술과 수족관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은

화재 원인을 전기누전으로 보고 있다.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설비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소재의 물품이 많아 번지는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수 수산시장은 지난달 초 여주시, 소방서, 전기업체 등이 합동 점검했지만 전기 및 소방설비 모두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산시장은 지난 1969년 개설됐으며 하루평균 2000명 이상이 찾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전당대회 득표율 압도적 1위 ... 대선 지휘봉 잡아

문병호·김영환·황주홍·손금주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4선·목포)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신임 박 대표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80%)와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 61.58%(1인2표)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당권을 거머쥐었다.

박 대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지율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당을 견인해 내고 대선을 지휘할 임무를 맡게 됐다.

5명이 출마한 이번 전대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등 5명을 득표순으로 선출해 출마자가 모두 지도부에 진입하는 사실상의 순위 결정전으로 치러졌다. 문병호 전 의원은 50.9%로 2위에 올



랐고, 김영환 전 의원이 39.4%로 3위를 차지했다. 호남 재선인 황주홍 의원이 26.9%, 호남 초선인 손금주 의원이 21.1%로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여성위원장에선 신용현 의원이 당선됐고, 청년위원장은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3~14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사전투표를 실시한 국민의당은 이날 대표 당원 6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투표를 진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소환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뒷선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 주중 나란히 박영수 특별검사에 소환될 전망이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주 중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 소환이 아닌 개별 소환을 염두

에 두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7 희망을 쓴다 ‘5·18 연극’

청주대 연극학과 학생들이 ▶7면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
사업가로 새 인생 박수련씨 ▶18면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